

금요 양성 2024년 7월 19일

재속 프란치스칸과 성체 (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

7월은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 성월이며, 또한 3년에 걸친 성체 재인식 (Eucharistic Revival)을 기념하고 있으므로, 이번 달에는 이전에 개재했던 성체에 대한 양성중 몇개를 다시 연재하겠다.

성 프란시스는 성체 성사에 대해 혼신을 다했다. 그는 첫번째 권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내 몸이며[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다(마르14, 22, 24). 11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요한6,54). 12 그러므로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13 바로 이 영을 지니지 않은 채 감히 주님을 받아 모시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1고린11,29). (권고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270-271 쪽)

우리가 세라핌적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 또한 성체 성사안에 계시는 지극히 고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몸과 피에 혼신을 다 해야 한다. 우리의 회칙과 회헌을 들여다 보자.

회칙 8조: ...”회원은 교회의 성사 생활, 특히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회헌 14.2: (회칙 8에 대하여) “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또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미사성제는 형제회 생활의 중심이다. 회원은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미사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며,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도와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도록 정신을 열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116]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 안에, 특히 성체 안에 탁월하게 현존하게 하신다.” (가톨릭 교리서 737 항)

회헌 제 53조 2항과 4항(회칙 6조와 8조에 대하여): 2. 형제회는 형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프란치스칸 가족의 신분을 확립시켜 주는 분위기 안에서 미사성제를 거행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서도 정기적으로 모임 것이다. 자체로 전례거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더 큰 공동체의 전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주의: 미사성제는 본당신자들과 함께 참여하므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준다. 이 미사성제는 지역 본당과 교구 공동체와의 접촉을 유지해 준다. 형제회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모임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즉 - 예를 들면 서약, 서약 갱신식,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의 장례식, 그 외 다른 중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사랑의 헌장 184-185쪽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인용 (프란치스칸 여정 177쪽)

“교회안의 미사성제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본당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들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와의 친교를 상기시켜 준다. 본당 미사에 참석함은 그것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 사랑의 표징이다.” (프란치스칸 여정 177-178쪽)

Barron 주교님의 성체에 대한 좋은 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sqy_TFelyiM&t=126s (Real Presence)

성체 재인식 (Eucharistic Revival)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오: <https://www.eucharisticrevival.org/>

우리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미사성제에 실제로 현존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운다.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하면서 성체 안의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가톨릭 신자로서, 또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당신에게 성체성사는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모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성체가 프란치스칸 영성에 어떻게 결속되어 있습니까?

+ 회칙과 회헌의 어느 조항이 미사성제에 대해 언급하는지 생각해 보시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성체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을 당신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